

시류음

우 리 의 그 리 움 영 원 하 리

김연주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장은 어버이수령님 서거 20돐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창작한 시들을 본사편집국에 보내어왔다.

그리움은 우리의 명줄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령님을 목매어 찾고 부르며
피눈물을 흘리던 7월
그날이 옛그제만 같은데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잊을수 있겠습
니까
저 북한처럼
가슴에 쌓여지는 그리움의 배
부리

짧지 않은 그 세월의 날과 달
들에
그리움을 엮고 살아온 우리
어버이 생각에 흘린 눈물로 많
았고

받아온 사랑과 정을 못 잊어
추억깊이 새겨본 사연도 많았
습니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
이라고
남달리 품들어 보살피신 수령님
은정
약동하는 조국의 벼간 숨결로
우리 심장을 높뛰게 하여주신
그 사랑

꽃중의 꽃을 플라
아름답게 엮은 꽃바구니
삼가 드리웁니다
유서깊은 길림육문중학교
어버이수령님 동상앞에

수령님 따르는 동포들 마음이
붉은 꽃 잎잎에 어렸습니다
20년세월 변함없는 효모의 마
음

부모의 사랑 잊는 자식 없듯이
수령님사랑 잊고산적 없는 우리
동포들
스무해가 흐르고 200년이 흐른
다 한들
수령님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수령님 우리결을 떠나신 7월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 마음속에
영원히 오신 7월이라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7월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을 맞으려
니다

그리움이 없는 7월은
우리에게 7월이 아닙니다
떠나서 살수 없고 없이는 못사는
정녕 그리움
그리움은 우리의 명줄입니다

지 지 않는 꽃

온 동북땅의 꽃들이 모여
수령님동상앞에 피어웃나니

수령님 뵈고싶어 늘 찾는
우리 동포들의 발걸음 끊기지
않는 곳

봄에 와도 여름에 와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꽃이 피어웃는 곳입니다

꽃은 피어 한계절이지만
꽃속에 수령님 길이 모시고픈
마음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지지 않는 충정의 꽃에 받들려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 리 는 길 립 사 람

사람마다 가슴에 안고사는
인생의 자부는 제나름이겠지만
길림에 사는 우리 동포들
지니고 사는 궁지는 하나

—우리는 길림사람이다!

우리는 길림사람
가슴찌르티 울려주는 이 말속엔
있어라
지구상 곳곳에 사는 해외의 동
포들 많아도

수령님동상을 모시고 사는
영광
오직 우리만이 누린다는 그 행
복이

열혈의 시절 어버이수령님
이 땅에 일으키신 그 길림바람
을 마시며
어제도 오늘도 사는 자랑
어디 가나 수령님 남기신
혁명의 자옥도 많은 길림에서
우리는 산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수령님 항일력사의 증견자 길
림이어
여기서 숭고한 뜻
위대한 업적 길이 전해가며

수령님을 받들어 사는 우리는
길림사람

수령님께 꽃을 피워드려도
더 붉고 더 아름다운 꽃
우리 길림사람들이 드리고싶
어라
수령님의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가슴을 치는 격정
우리 길림사람들이 더 뜨겁게
더치고싶어라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십니다

수령님 우리 동포들을 안아
보살려 베풀어주신
태양의 열처럼 뜨거운 그 사랑
아, 원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이역에 살아도 조국의 녀으로
살라고
수령님 이끌어주신 걸음걸음
다심하신 어버이의 그 은정
아, 원수님은
그 친근한 어버이마음 지니셨
습니다

어이 달리아 말할수 있겠습니까
지으시는 미소도 우렁하신

수령님 사연깊은 인연을 맺으
시고
한평생 그리도 잊지 못해 하신 땅
조국인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재중동포들 누구나 마음을 두
고 사는
혁명의 고장 길림

송화강흐름이 영원하듯이
어버이수령님동상 높이높이 모
시고
후세에 영원토록 물려가리
길림에 사는 이 궁지 이 자부를
아, 우리는 길림사람이다

읍성도
어쩌면 수령님과 똑 같은신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대원수님

어머니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여
원수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을 때
그이는 분명
한평생 우리 동포녀성들을 사랑
해주신
친정아버지 수령님이시였고

전승철 정축의 기쁨을 안고
원수님과 함께 기념사진 찍을
때도
그이는 분명

길 립 육 문 중 학 교 에 모 신
빨치산대장
젊음에 넘치신 평장의 모습이었
습니다

수령님 떠나 못사는 우리에게
수령님의 모습으로 오신분
원수님 계시어 흐르는 세월
수령님과 떨어져 산 날 없었고
아버지없는 설움 느껴본적 없었
습니다

수령님사랑 장군님사랑
그처럼 뜨거운 심장에 지니시고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해외의 동포들을 안아주시는 넓
은 품
그 품만이 우리가 안겨살
운명의 하늘 운명의 바다

그 하늘을 못 떠나 날아에는
우리는 그리움의 새
그 바다에 안겨 마르지 않는
우리는 푸르른 시내물
원수님 모신것은 민족의 대행운
이거니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7월의 그리움은 영원합니다
원수님 떠나 우린 못합니다
천만년 높이 모시고 따를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태양이 계십니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되고
저녁으로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로동과
휴식으로 레사roi 보내
는 그 하루하루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날, 천
날맛잡이로 헌신하시였다.

주제81(1992)년 5월 5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왕건왕릉
을 찾으시여 왕릉을 잘 꾸리
고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어
릉의 품격을 갖추도록 할데
대해 이르신 날이다. 그날의
현지도가 있어 왕건왕릉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웅건
하게 개건될수 있었으며 동
일국가건설의
력사를 전하는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유적
으로 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사를 더
욱 빛내고 력사문화유적
하나하나를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후손만대 길이 물려
주기 위해 수령님께서 그날
에 바치신 헌신과 로고에 대
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
하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평
양을 떠나신것은 새벽 5시
30분이였다. 전날 저녁에 개
성까지 갔다오자면 일정이
긴장하니 아침 일찌기 떠나
야 하겠다고 하신 그이께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무렵 차를 달린것이
였다.

승용차가 개성을 얼마 앞
두었을 때 시계바늘은 7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이제 몇분
만 달리면 개성이였다.

그런데 이때 수령님께서서
차를 멈추게 하시고는 한 일
군에게 여기서 잠시 쉬면서
아침식사를 하고 떠나자고
하시였다.

순간 그는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올리지 못하였다. 봄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날씨가
는 쌀쌀하였고 더우기 현지
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기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방적정
은 말라고, 자신께서 어제
저녁에 파악을 준비시켰는
데 그것을 하나씩 나누어주
라고 하시며 그러면 개성이
라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
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다고
하시였다.

곧 어버이수령님게도, 동행
한 일군들에게도 밥집에 나물
채 몇가지가 담겨진 수수한
떡밥이 똑같이 차례지게 되
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
군들과 함께 보존병의 물을
따르시며 아침식사를 하신 시
간은 15분도 채 안되었다. 이
렇게 시작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모정이었다.

개 성 에 도 착 하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려
박물관을 보시고 그 걸음으
로 만월대와 선죽교, 표충비
그리고 고려태조 왕건왕릉을
비롯한 력사문화유적들을 돌
아보시였다. 하나하나의 유
적들을 보시며 가르치심도
주시고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
한 력사문화유적들과 유물
보존관리사업을 잘할데 대
하여 거듭 강조하기도 하
시며 이른아침부터 먼길을
달려오신 자신의 피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느덧 오후가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 일군들은 졸
취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몇
번이나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게서
는 오후에도 개성방직공장과
공민왕릉, 박연폭포, 박연협
동농장을 돌아보시였다. 이
렇게 온 하루 현지도를 하
시고 그이께서 평
양에 도착하신것
은 저녁이였다.

평양에 도착하
자마자 어버이수령님게서
는 그날 현지도에 대한 력
사학자들의 반응을 보고받으
시며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그이의 현지
지도모정이 그대로 집무실로
이어져 그날 하루 그이의 사
업시간은 무려 17시간에 달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게 있
어서 이날은 너무도 평범한
하루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하루하
루를 이렇게 사시며 불면불
휴의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
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 한
한생은 바로 이런 가슴뜨거
운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
진것이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민족해방력사

로길남 《민족통신》대표의 글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자주
독립과 조국통일, 민족해방
을 위한 투쟁의 력사로 아
로새겨져있다. 김일성주석
의 생애는 또 인류력사애
서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
의 력사를 현실화하여놓았고
영원히 후대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세계 제1의 일심단결의 나
라,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
여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침
략할수 없는 군사강국을 이
룩하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
신분이다.

그이는 1912년 4월 15일
탄생하여 1994년 7월 8일까지
의 전생애를 자주독립과 조
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
해 헌신하며 활동하다가 겹
쌓인 피로에 의해 서거했다.
1994년 7월 7일 마지막문건에
서명한 자로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
담자로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동포들은 그이의
서거에 피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에도 김일성주석은 우리
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생
각으로 삶의 중심에 언제나
그이를 모시어왔다.

지구촌 나라들이 2백여
개가 되지만 그 나라들가운
데 가장 단결단합이 잘된 사
회를 꼽으라면 단연코 우리
민족의 절반인 이북을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왈가
왈부하는 나라들은 없다. 그
리고 이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해내의 동포들
도 없다.

이북동포들은 국내외 누구
를 만나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긍지높게 생각하
는것이 일심단결이다. 이같은
은 단결단합의 구심에 언제
나 이북동포들의 최고지도자
가 있다.

일심단결의 독창적인 철
학사상을 만드신분은 전세

계 진보주의나라들뿐만아니
라 서방나라들에도 널리 알
려져온 김일성주석이다. 마
로 김일성주석이 이북동포들
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 세
계 제1의 일심단결의 나라로
만드는 기초를 세웠다. 그
독창적인 주체의 사상리론이
김정일 국방 위 원 장 과
김정은국방위원장 제1위원장
의 유훈정치로 모든 실천을
에서 검증되어왔기때문에 이
북은 지금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
강국, 첨단과학기술강국으
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일제시대인 1938년 제1차
고난의 행군도 김일성주석
의 령도에 의해 극복되었다.
1945년 8.15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른 제국주의자들이 미
국에 의해 나라가 둘로 갈라
지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
북련석회의를 소집하여 김

구선생을 포함하여 민족주의
자들과 좌우세력을 하나로 만
들어 전민족대단결의 력사를
창조하였던분도 김일성주석
이었다.

미국에 의해 조국이 분
렬되었고 미국이 그 하수
인에 불과한 친미친일세력
인 리승만을 내세워 1948년
8월 15일 미국의 대리세력
으로 《단독정부》를 조작
하였지만 이에 맞서 사대
주의를 배격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갈망했던 우리들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
었다. 그래서 이북에는 그 어
떤 외국군도 없고 그 어떤
외세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그야
말로 해방지구가 건설되었
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주석
이 건설한 주체사회주의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이다.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히시려고

육부분 일군들을 위한 살림
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것
을 건설분야에서 주타격방향
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씀하
시였다.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약속은 오
늘 현실로 되고있다. 평양
의 룡흥네거리에 김일성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번듯하
게 일떠섰으며 지금은 위성
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이 한
창이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찾
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
해주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
면서 천수백새
대의 살림집건
설부지를 확
정하고 계획
을 잘 세워 최
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
다고, 건설력
량도 풍부하
기때문에 얼마

든지 할수 있다고 하시며 착
공날자와 완공날자까지 정해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당당
한 위성발사국의 과학자들
이 살게 되는 거리라는 의미
에서 《위성과학자거리》라고
이름도 붙이주시였다.
그뿐만 아니다. 얼마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늘 강조하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
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
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
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
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
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
을 축으로 대동강반에 김책
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
들도 꾸려주게 되면 웅건 하
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
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

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평양의 곳곳에 회
한하게 솟아나는 과학자, 교
육자들을 위한 훌륭한 살림
집들이야말로 건설의 발기로
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
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
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손
길에 떠받들려 마련되는 과학
자, 교육자들의 행복의 보
금자리, 사랑의 금방석이다.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
는대로 인민의 천만가지 행
복과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앞당기
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
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권창호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
기슭에 또 하나의 멋쟁이건
물이 일떠서고있다.
서서히 자기의 자태를 드
러내놓으며 번듯하게 일떠서
는 이 건물이 바로 평양육아
원, 애육원이다.

얼마전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
장을 몸소 현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일떠서는 곳은 정말로 명
당자리라고, 육아원, 애육
원을 우리 당의 후
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
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
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실
을 비롯한 모든 요소요소를 최
상의 수준에서 시공하는 문
제와 야의 및 실내물놀이장
과 오락실을 특색있게 꾸려
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새
세기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
축물로, 아이들의 사랑의요
람으로 새로 건설되고있는데
는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마음쓰시며 부족한것없이 내
세우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리
여있다.

지난 2월 그이께서는 평
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었다. 아버지라 부
르며 한달음에 달려와 안
겨드는 원아들을 품에 안
아 불도 다독여주고 몇살
이냐고 다정히 물어도 주
시던 원수님께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
리워한다시며 우리가 부모들
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
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
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사랑의 집

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푸
집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
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
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
고,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
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겠다
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새로 건설될
육아원, 애육원이 풍치수려
한 대동강기슭에 자기의 터
전을 잡게 된것이며 그후에
도 그이께서는 설계로부터
자재보장대책,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하
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 얼마나 육아원,
애육원건설문제를 심중에 소

중히 안고계셨으면 지난 6월
1일 국제야동절을 맞는 평양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을
축복해주시고 떠나실 때에는
지금 당에서 대동강반에 현
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
떠세우고있다고, 원아들이
다음에는 새로 건설된 애
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
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까지 남기시였
는가.

그렇게 떠나신 날이 어제
만 같은데 건설현장에까지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원수님이시다.
흔히 사람들은 교아의 운
명만들 출출하고 눈물겨운것
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에 한점의 구경
살도 없이 나라의 앞날을 떠
매고나갈 믿음직한 주인들로
باط 섹섹하게 자라나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아이들의 밝
은 모습, 밝은 웃음을 위해
낫이나 밤이나 마음쓰시며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해빛같이 따사로운 사랑
의 손길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이 땅의 꽃봉오리들 가운데
는 단 한명도 그늘진 아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것, 천이
면 천, 만이면 만 온 나라
의 아이들모두가 한모습으
로 밝게 웃을 때 조국의 모
습이 더 밝고 창창해진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
고한 후대사랑의 세계이다.
바로 이처럼 열렬하고 웅
심깊은 친애비이의 사랑의
손길속에 오늘이 땅에는 아
이들을 위한 재부가 끝없이
늘어만 나고 아이들의 행복
의 웃음소리는 날에
날마다 높아만 가고
있는것이다. 이제 머
지않아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번듯하게 일떠서게
된다.

대동강반에 일떠서는 집.
이 집은 단순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교양기관
만은 아니다. 이 집이야말로
원아들이 안겨사는 공화국의
넓은 품이며 한없이 따사로
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
다. 그 품속에서 그들은 조
국의 참된 아들딸, 미래의 주
인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한 공
화국은 그 힘으로 세상에 존
엄로운 사회주의강성국가들
이 땅위에 일떠세우게 될것
이다.

본사기자 리경월